안녕하세요. 저는 이 신자 수녀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의 체험!” 이 체험은 나를 사랑의 씨튼 수녀회로 인도하신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1959 년 제가 고 2 때 성가대의 일원으로 판문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US 군부대의 성탄 밤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 미사 후 한 흑인 병사가 오르간을 치고 국적도 피부색도 다른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맞잡고 케롤을 부를 때 하느님 안에서 하나라는 경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한국 사랑의 씨튼수녀회를 방문했을 때 같은 체험을 하며 1971 년 입회하였습니다. 메리 아그네스수녀님, 노린수녀님, 지인수녀님, 헤레나 수녀님, 말린수녀님, 승혜수녀님과 함께 생활 하면서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체험하였습니다. 초창기의 미국 수녀님들은 한국 문화를 존중하여 자주 “한국인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하며 수도회 결정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1983 년 듀캐인 대학교에서 양성영성학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마더씨튼의 영성을 한국에 육화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저의 수련장이셨고 한국 지부장과 관구장을 역임하신 말린수녀님과 함께 한국 초창기 양성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마더씨튼의 사랑과 돌봄의 영성을 한국에 뿌리내리기 위해 미국의 평등사상에 기초한 상호 존중성과 한국에서 연장자에 대한 섬김과 돌봄의 미덕을 함께 살아내는데 양성의 핵심을 두며 사랑의 씨튼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와 사회 안에서 씨튼수녀회는 상호존중과 한국 고유의 미덕을 사는 사랑의 공동체로 각인되면서 다른 국제수도회에서 자문을 청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2002 년 우리 수도회가 각각 다른 문화와 필요에 응답하여 두 관구가 되면서도 하나의 수도회로 남은 것은 바로 사랑의 씨튼 수녀회의 정체성 안에서 다양성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도 총 이사들 중의 하나로 선출되어 총장이신 말린수녀님과 함께 양 관구에 다리가 되어 기뻤습니다. 2010 년 미국 가톨릭대학교에서 “성녀 엘리사벳 앤 씨튼의 삶과 글에 드러난 영적지도의 실제 “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강의와 피정등을 통해 마더씨튼의 영적지도를 더 깊이있게 나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태리로 떠나는 아들 윌리암에게 “민족의 편견”을 벗어나 “다양한 관행과 풍습을 인정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전집 2 권. 6.182)” 당부하신 마더씨튼의 영적지도는 우리가 공동체와 사도직 안에서 다양성 안의 일치를 하느님 안에서 이루도록 이끌어 주며 마더씨튼의 말씀대로 “세계의 시민”되는 지름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Hello, I am Sr. Lee, Shin-Ja. "Experience of unity in diversity!" This experience is the guidance of God that led me to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n 1959, when I was in the second grade in high school, I as a choir member attended the Christmas Evening Mass at the US military base near Panmunjom. After the mass, a black soldier played the organ and people sang Christmas carols holding hands with each other. At that time I stood in awe that we all were one in God even though we had different nationalities and colors.

Then again I had the same experience when I visit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of Korea, so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71. I lived my religious life with Sister Mary Agnes, Sister Mary Noreen, Sister Jean Malloy, Sister Helena, Sister Marlene and Sister Sung-Hae. I experienced the community of love in which the sisters respected each other and united in God. From the early days, American sisters respected Korean culture so they often asked me what I thought about an issue as a Korean even if I was a beginner in the community. So I could participate in the community's decision-makings.

After graduating from Duquesne University with a master's degree in the formative spirituality in 1983, I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incarnation of the Saint Elizabeth Ann Seton's spirituality in Korean culture. I made Formation Directives at the early stage of Korean community with Sister Marlene Mondalek, who was my director of novices and served as a regional superior and a provincial superior. In order to take root Mother Seton's spirituality of love and caring in Korea, the core of the formation was on living in both mutual respects based on the idea of equality in U.S and the virtues of serving and caring for the elderly in Korean culture. We strived to build a community of love with all Sisters in Korea. Therefore, as our congregation was considered as a community of love in which sisters respected each other and lived traditional Korean virtues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and society, other international congregations often consulted with us for their community.

In 2002, we decided to remain one congregation as two provinces responding from different cultures and needs. It was unity in diversity that we achieved in the identity of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At that time, I was elected as one of General councilors. I was pleased to play a role as a bridge between two provinces with General superior, Sister Marlene. I received my Ph.D.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in 2010. My dissertation was on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in the Life and Writings of St. Elizabeth Ann Seton"*. So I could share Elizabeth's spiritual direction more deeply with our sisters through lectures and retreats. Mother Seton asked her son, William who left for Italy, "not to give way to National prejudices, but to allow for many customs and manners…try to please everyone you must be with..." (Collected Writings VolumeII, 6.182). I believe that this spiritual direction of Saint Elizabeth leads us to achieve unity in diversity within our communities and ministries in God. And it is a shortcut to become "a Citizen of the World" as she said.